

백석인증제 인성개발 지도사부스 (창의융합역량)

백석인증제와 쿼캠에 대해 S-PIPES 인성모델을 바탕으로 교육받고 그것을 토대로 수많은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을 만나 직접 만든 교육자료들로 교육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인증서나 자격증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저는 백석인증제와 쿼캠을 단순히 인성지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 교육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5군단 부스 (사회공헌역량)

두 번째로 갔던 5군단 부스에서는 군복이나 헬멧, 전투용 배낭 등 군대 관련된 물품들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었고 군복과 헬멧을 직접 쓰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군복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군복을 입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의무와 책임감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대의 친구나 선배, 동생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꽤 오랜 기간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컴퓨터공학부 20222872 정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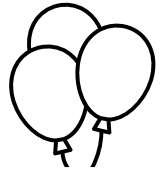
평가적 차원 부스 (협업역량)



평가적 차원 부스에서는 같은 조의 조원분들인 예슬 님, 하나 님과 함께 4인용 자전거를 탔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열심히 페달을 굴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갈 수 있었으나 후진이 안 되는 4인용 자전거여서 후진을 할 때면 다 같이 내려 자전거를 돌리고 끌어가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는 다소 눈에 띄는 4인용 자전거를 조금 어색했던 조원들과 타게 되어 초반엔 조금 부끄러웠지만 떠들며 자전거를 타다 보니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더 가까워지고 친해진 것 같아 독특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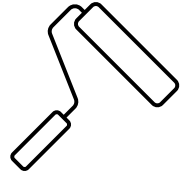
인식적 차원 부스 (문제해결역량)

다른 조와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 부스로, 작은 풍선에 행복하게 살기, 부자 되기 등의 각자의 비전을 적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다른 조의 조원들이 비전을 썼던 풍선을 페인트 총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이 터뜨리는 활동이었습니다.

풍선에 비전을 쓰는 활동에서 비전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하여 적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진정한 나의 비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굉장히 흥미롭게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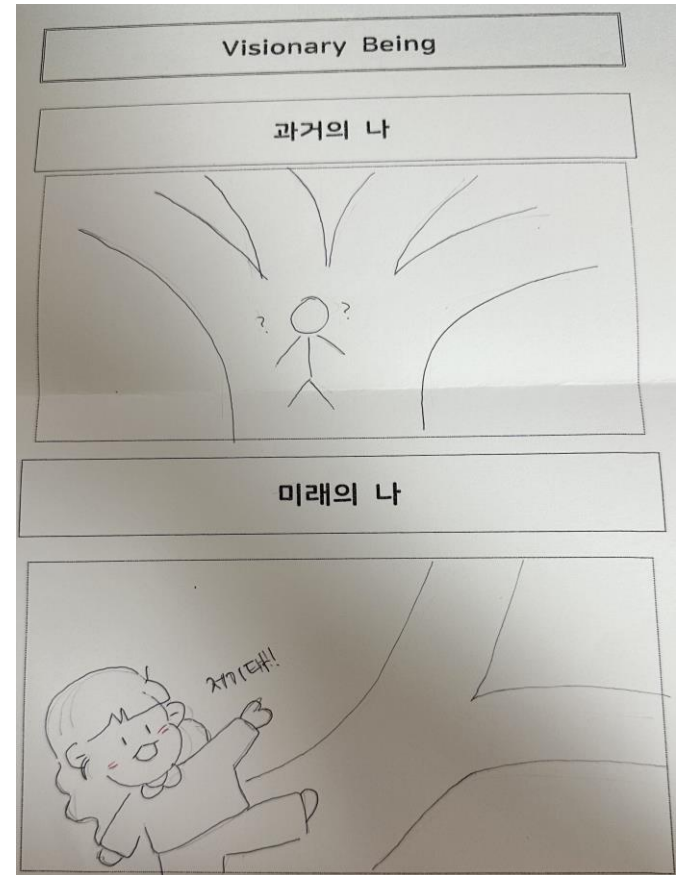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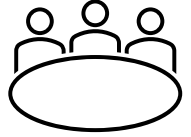
정서적 차원 부스 (대인관계역량)



정서적 차원 부스에서는 과거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는 미래 나의 모습을 그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과거 나의 모습에 많이 소극적이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을 그리다 보니 지금의 나는 조금이나마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보다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그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나에 대해,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직접 말로 함으로써 실천하여 내가 바라는 미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서적 차원 부스 (의사소통역량)

앞서 각자 그렸던 과거 나의 모습과 미래 바라는 나의 모습을
조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서로의 그림에 대해 소통할 때, 조원
들은 각자의 그림을 들어 설명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 그림과
이야기에 집중하고 경청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과거 나를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힘들
어서 초반에 횡설수설하며 설명하였는데 조원들이 그림을 자세
히 봐주고 이야기에 집중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청하는 자세만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월드비전 부스 (섬김리더십역량)

이번 부스에서는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아침머고 캠페인, 직접 만드는 한 끼, 사랑의 도시락 등의 결식아동지원사업 영상을 보았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청원캠페인인 아웃크라이에 대해 소개받고 청원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후원에 대한 내용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결식아동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놀랐고, 재난 피해 아동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후원하는 금액대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꼭 후원을 해보자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